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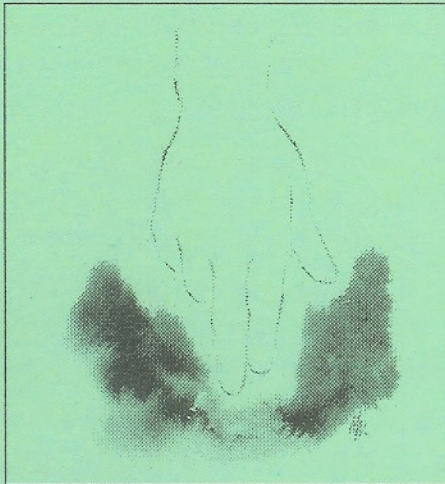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3주일(순교자 성월)
제29권 41호(나해) 2009 · 9 · 6

[묵상]



그에게 “에파라!”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마르 7,34).

“광야와 데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그곳에 큰길이 생겨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니
부정한 자는 그곳을 지나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앞장서 가시니
마보들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구원받은 이들만 그곳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이사 35,1-10)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중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30 7:00 8:00 7:3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1:00 2:30 1:00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326-435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 엄은섭 도로테오
	(생) 김석기 스테파노, 조지 가보라, 이상용 엘리야&주영 크리센시아, 김풍길 바오로&재희 모니카 가정, 신정원 마리아
주 일 낮 미사	(연) 이인표, 이병호 토마스, 김중환 야고보, 이현호 요한, 최복덕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금순 마리아, 이인순, 이상현 베드로,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엄익수 바오로, 여성분 로사, 김시형 시릴로, 김정재 안젤라
	(생) 이경용 야고보& 윤조 클라라, 이행자 리드비나, 남인구 야고보&정선 안젤라, 윤결 파르톨로메오, 박형두 제이콥, 이종원 베드로&아네스 가정, 이종민 요셉, 대건희, 고규재 체칠리아, 엄혜은 도로테아, 채승희 에스더, 최경애 프란치스카, 윤석환 아우구스티, 오일순 헬레나, 신중신 다니엘&영애 켈라 가정, 신철규 미카엘, 윤대옥 다니엘&신아람 올리아, 서병교 라파엘&혜경 세라피나 가정, 박상대 마르코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35,4-7

화답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알렐루야.
○당신은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 이에게는 빵을 주시고, 사로잡힌 이를 풀어주시도다.○
○주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은 억눌린 이 일으켜 주시며, 주님은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며, 주님은 나그네를 지켜 주시도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길러 주시나, 악한 자의 길만은 어지럽게 하시도다. 주님 영원히 왕하시리니, 시온아, 네 하느님 세세에 계시도다.○

제 2독서 야고보서 (James) 2,1-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복음 마르코 (Mark) 7,31-37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9	343
봉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255,230
성체	You Are Mine	281,298
파견	262	345

33) 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간청은 사실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흔히 죽여 달라고 하는 중환자들의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원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것은 거의 언제나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고뇌에 찬 간원인 것이다. 의학적인 가료 외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부모, 자녀, 의사, 간호사 등 가까운 모든 사람이 병자를 예워쌀 수 있고 또 감싸 주어야 하는 인간적이고도 초자연적인 온정이 필요한 것이다.”<안락사에 관한 선언 2장>

‘안락사(Euthanasia)’는 희랍어로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평화로운 죽음’ 등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장애인 불치의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의도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안락사가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문화는 “효율성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태도를 지니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또 지나치게 짐스러운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생명의 복음 64항) 따라서 죽여 달라는 이들의 간청은 사실 자신들을 짐스럽게 여기는 가족과 사회에 대해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종을 앞둔 이들을 돕는 호스피스 제도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34) 과도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양심상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을 보호해 줄 뿐인 치료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은 양심 안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안락사에 관한 선언 2장> “[의료집착은] 인공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연장시켜 환자들을 더 고갈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임종자의 존엄성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궁극에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맞이하는 도덕적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 생명의 영원한 일부이다.”<의료인헌장 119항>

통상적이고 균형에 맞는 치료방법을 모두 사용한 후 막다른 길에 와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의사는 결과가 불확실하고 환자나 가족에게 지나친 부담만을 줄 수 있는 예외적이고 과도한 치료를 양심에 따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하는 종류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이나 안락사와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생명의 복음 65항) 그러나 여기서도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간호와 영양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집착적인 행위를 중단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사들의 양심과 전문적인 지식 및 정확한 판단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장애인 헬렌 애덤스 켈러(Helen Adams Keller, 1880-1968) 여사의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이란 글의 일부입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한 현대의 위인입니다. 헬렌은 자신의 삶에 대해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든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걷고 뛰고 먹는 일상생활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렵고, 걷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 지역에서 어느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하느님의 구원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귀머거리는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귀를 열어 주시고 굳은 혀를 풀어 주는 육체적인 치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악령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령의 지배하에 있던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구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영육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주님을 찾는 방법은 다만 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며 귀머거리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알아보아야 하며, 오로지 하느님께만 모든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서 너의 닫힌 귀를 열어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묶인 혀를 풀어 진리를 선포해라!”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중철 아브라함	채승희 에스티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이재웅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김금자 테레사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신덕레 테레사	최진수 예수세미오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연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바오로 서간 완필자 시상식, "축하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6일) 낮미사 중
- 상품 : 김수환 추기경 DVD 영상물
- 완필자 명단 : 강숙경, 고규재, 권순길, 김금자, 김대우, 김문선, 김미성, 김신영, 김영경, 김옥찬, 김정웅, 김찬구, 김철래, 김춘자, 김크리스틴, 김행선, 김현숙, 문베로니카, 박명순, 박명자, 박진숙, 박희자, 배난군, 변혜경, 서병교, 엄정자, 오혜숙, 유현영, 윤희동, 윤남열, 우영희, 이순자, 이바르톨로메오, 이병권, 이병우, 이복임, 이정자, 이해선, 장선희, 장주란, 정기은, 정종숙, 천광락, 천남숙, 최기남, 최미나, 최숙, 최경애, 한경숙, 한길선례, 한애경, 한혜숙, 황지영. **이상 53명**

- ◆ **2009년 복사단 모집 안내**
- 대상 : 2009년 첫 영성체 한 2학년~6학년(주일학교 재학생)
- 접수 : 오늘 주일(6일)까지 사무실 접수
- 복사단 입단을 위한 매일미사 참례는 9월9일(수), 10일(목), 16일(수), 17일(목)입니다.
- 문의 : 수녀님

- ◆ **남가주 M.E. 제64차 첫주말 에 본당에서 4쌍 참가**
- 일시 : 9월11일(금)~13일(주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P.V.)
- 참가부부 : 김관기 라파엘 & 명재 아가다
유근우 알렉시오 & 현화 리디아
금영도 베드로 & 유미 크리스티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 희경 크리스티나
- 문의 : 백삼위 M.E. 대표 김인자 요세파나 부부 ☎803-0777

- ◆ **St. Margaret Mary 본당 연례 로미타 축제**
- 9월11일(금)~13일(주일),
- St. Margaret Mary 성당 : 25511 Eshelman Av, Lomita
- 각종 게임, 다민족 음식 판매, Rides, Live Entertainment, Queen Contest, Craft Fair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 Raffle 티켓 판매 : 1장당 \$2 (1등 \$15,000 & more)
- 모든 수익금은 본당 사목과 St. M.M. 학교기금으로 이용됩니다. 교우들의 호응을 바랍니다.
- * 문의 : 마가렛 매리 본당 ☎(310)326-3364

- ◆ **여성 분과 '미션' 순례**
- 일시 : 9월12일(토) 오전 7시30분~오후 5시
- 출발 : 성당 주차장에서 버스로 출발
- 장소 : 산타바바라 미션 & 카추마 레이크
- 대상 : 성모회, 자모회, 구역장, 반장
- 참가비 : \$10

- ◆ **9월19일 토요일 특전 미사 오후 6시로 임시 변경**
- 남가주 한인 가톨릭 청년연합회 성경 퀴즈대회를 9월19일 본당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이날 특전미사(청년미사)를 오후 6시로 임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미국대학의 최근 입학동향 설명회**
- 일시 : 9월25(금) 오후 8시 성당
- 내용 : 금년도 대학입학의 변화 추세,
아이비 리그 대학의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입학차별,
대학/대학원 교육과 사회진출
- 강사 : 송종두 요한 박사(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 **백삼위 작은 음악회**
- 일시 : 9월27일(주일) 오후 4시~7시30분
- 장소 : 친교장
- 대상 : 전 신자(저녁식사 제공)
- 참가문의 : 각 구역장, 반장

- ◆ **청년 레지오 마리아 프레시디움 '다윗의 탑' 창단 준비모임**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2층 교실
- 참석대상 : 대학부 PACEM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
- 문의 : 황선희 그레고리오 ☎(424)903-6637

- ◆ **김수환 추기경 DVD 영상물이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십시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6일(주일) : Labor Day 연휴주간으로 친교없습니다.
- 9월13일(주일) : 토런스 동2만(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김광자	김병조	김성일	김영미	김옥찬	성전헌금	강순복	김광자	김병조	김성일	김옥찬	김우용
	김우용	김일선	김재영	김진숙	김태호	박선희		김일선	박선희	박종열	오진희	오세원	유영균
	박정자	박종열	신현화	오진희	오세원	유영균		이병우	이일길	이호미	정규숙	최미열	최재은
	이관용	이병우	이호미	정규숙	조소영	최금옥		최희대					
	최미열	최수복	최재은	최희대	합계 : \$2,925			합계 : \$1,640					
미사헌금 : \$2,840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 9월13일부터 주일학교/한국학교 개학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각급 학교가 새학기 개학을 했습니다.
 우리 본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도 13일 주일부터 개학합니다.
 여름방학동안 해이해진 몸과 마음을 가드듬고 자녀들이 학
 교생활에 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 ◆ Teaching Touching Safety
 ● 일시 : 9월20일(주일) 오후 6시30분~8시
 ● 장소 : St.Margaret Mary 성당(25511 Eshelman Av. Lomita)
 ● 내용 : 건전 또는 불건전한 대인접촉 사례와 대처방법에 대
 해 모든 고등학생(9~12학년) 대상 교육.
- ◆ 주일학교 Back to School Night
 ● 일시 : 9월25일(금) 오후 7시, 성당
 ● 대상 : 모든 주일학교 학부모 및 교사
 ● 내용 : 학교 소개 및 행사 안내, 교사 인사, 건의사항 등
-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등록기간 : 9월27일(주일)까지
 ● 등록비: \$100 (9월14일 이후 \$11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 무료 * 자모회비: \$40 (가정당)
 ● 특히 2학년(첫영성체반), 9학년(예비 견진교리반), 10학
 년(견진 교리반)에 해당하는 학생은 꼭 등록해 주십시오.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한국학교 교사 연수 : 오늘 주일 오전 11시 교사실
- ◆ 한국학교 2009~2010 학년도 1학기 등록
 ● 등록기간 : 매주일 미사 전후
 ● 대 상 : 프리스쿨(만4.5세), K~12학년까지,
 11월 SAT II 시험 준비학생(\$150, 교재비 포함)
 ● 등록비 : 첫째아이 \$150, 둘째 \$140, 셋째 \$130,
 넷째부터 무료 ☎ (310)347-8765 이헬레나 교장

남가주 소식

- ◆ 남가주 한인가톨릭 청년연합회 2009년 성경 퀴즈대회
 지난 4년간 남가주 한인 가톨릭 청년연합회는 성경 퀴즈대
 회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각 성당간의 교류와
 친교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일시 : 9월19일(토) 오후 6시
 ● 장소 : 백삼위 본당
 ● 지도 : 최용훈 요셉 신부
 ● 문의 : 박치훈 스테파노 ☎(213)675-2755,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휴회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না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유현자 아나 328-3697 9/11(금) 오후 7시30분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정기은 비오 618-9775 9/19(토) 오후 7시
	3	신덕레 데레사 634-6169	신덕레 데레사 634-6169 9/17(목) 오후 8시2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교복 레오 328-1817 9/12(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최상만 사비노 800-7393 9/18(금) 오후 7시
	3	장정진 페로니카 803-7798	권영옥 루시아 720-2876 9/15(화) 오전 10시 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최경숙 수산나 320-0855 9/1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박희자 마리아 325-6982 9/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이용식 베드로 962-8414 9/11(금) 오후 7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	김민수 바오로 530-3232	김민수 바오로 530-323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재일 미카엘 544-9460 9/18(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명숙 루실라 404-6012 9/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선제 바오로 435-9925 9/15(화) 오전 10시, 성당

◎ (5) “고해자들은 비안네 신부를 통해 큰 은혜 받았다.” ◎

비안네 신부는 헌신적으로 사목에 임했다. 신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대화를 하고 고해성사를 주고, 강론을 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냈으며, 온힘을 다해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할 것을 가르쳤다. 비안네 신부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지방의 온화한 기후가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일도 너무 적게 하고 편하게 지내니 지옥에 떨어질까 항상 걱정됩니다.” 그 결과는 금방 나타났다. 부자였던 한 귀족 신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겸손한 사제는 진주같이 귀한 사람이다. 이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 놓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어느 정도 성실한 신자들만 비안네 신부에게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쉬는 신자들이 문제였다. 아르스 마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심이 깊지 않았고, 기본적 교리조차 모르는 쉬는 신자가 허다했다. 마을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그때마다 퇴폐적인 춤과 술에 빠져 살았다. 비안네 신부는 이 같은 풍습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오직 하느님의 사랑이 살아 숨 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했다. 그가 얼마나 마을 사람들에게 강도 높게 하느님 사랑을 선포했는지는 다음의 미사 강론에서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님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조금 후 우리 주님(성체)을 들어 올릴 때 여러분은 그분께 여러분의 눈을 열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은총을 누구에게 선물할지 찾고 계시지만 아무도 그 은혜를 구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안네 신부는 새벽 4시부터 기도와 성체조배, 미사 봉헌, 고해성사 등으로 하루 중 10시간 이상 성당과 고해소에서 지내며 열성적으로 사목에 임했다. 틈틈이 가정과 환자 방문, 강론 및 교리 강좌 준비도 하였다. 주민들은 감동을 받았고, 몇 년 후 아르스본당은 그가 부임하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공동체가 되었다. 비안네 신부는 병자를 방문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꼭 방문했다. 한 번은 자신의 몸이 몹시 아픈데도 병자를 찾아갔다가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병자의 고해를 들어야 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 성사를 집전한 것이다.

성사에 대한 비안네 신부의 이러한 열정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1823년부터였다. 비안네 신부가 36세 되던 그 해,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피정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고해성사를 줄 사제가 부족했다. 결국 비안네 신부에게도 고해성사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한겨울에 9km를 왕복하며 이뤄진 고해성사는 ‘고행의’ 성사였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바쳤다. 이때 고해자들은 비안네 신부를 통해 죄 사함의 큰 은혜를 느꼈고, 그 고해자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당시 몇 주일 동안 계속된 피정에서 비안네 신부의 고해소는 늘 신자들로 붐볐다고 한다. 밀려드는 신자들로 인해 고해소가 넘어져 부서질 정도였다. 비안네 신부는 고해소에서 나오지 못했다. 한 번은 한 신자가 비안네 신부를 쉬게 하기 위해 고해소로 갔지만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자정에 찾아가도, 새벽 2시에 다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할 수 없이 이 신자는 완력으로 신자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고해소 문을 열고 신부를 모시고 나올 수 있었다.

이후 비안네 신부는 선종할 때까지 14년 동안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씩 봉사했다. 본당 신부들도 서로 비안네 신부를 모시겠다고 말다툼을 벌였을 정도였다. 아르스 마을 기록에 따르면 183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순례자가 3만 명에 달했다. 비안네 신부가 고해소를 나갈 때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해 보호를 받아야만 했다. 어떤 이들은 비안네 신부의 수단자락을 끌어당기고, 어떤 이들은 또 옷을 찢기까지 했다. 하지만 비안네 신부는 그들을 전혀 원망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고해성사에 임했다.

여기서 50대 비안네 신부의 하루 일과를 보자. 그는 대체로 자정과 새벽 1시경에 고해소로 갔다. 그리고 새벽 6시 혹은 7시에 고해소에서 나와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후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고해소에 들어간 비안네 신부는 오전 10시쯤 다시 나와 성무일도 기도를 바쳤다. 11시에 교리를 가르치고 성당에서 나와 사제관에 가서 각지에서 온 편지를 읽고 점심을 먹는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고해소로 향했다. 다시 고해소에서 나오는 시간은 저녁 7시 혹은 8시. 이후 비안네 신부는 묵주기도와 저녁기도를 바치고, 강론대로 올라가 강론을 한다. 강론을 마친 후 약 9시경, 비안네 신부는 비로소 혼자가 된다. 이 시간을 이용해 그는 끝기도를 바치고, 영적 독서를 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그는 선종할 때까지 하루 평균 2~3시간의 수면밖에 취하지 못했다. [◆가톨릭 신문 - 계속]